# 이웃에 자비 손길 내밀어

## 광주 신행단체들


자비신행회 회원들이 독거노인 주택에 연탄을 나르고 있다.

설날을 맞아 광주지역 신행단체와 사찰들이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뻗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1월 16일 자원나눔봉사단(단장 정용운) 회원 20여 명과 함께 광주 산수동 거주 독거노인 5명에게 연탄 1000장을 전달했다.

이날 연탄 200장을 지원받은 이수연(생활보호대상자 · 81) 할아버지는 "추운날씨에 꼭 필요한 연탄을 지원해준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자비신행회는 2008년에도 600만원 상당의 난방유를 30가구에 지원하는 등 후원자들의 정성을 모아 4년째 자비나눔을 실천해 왔다.

같은 날 광주 연화사(주지 명신)는 광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중 하나인 대인시장에서 연로한 노점상인 200여 명에게 떡국을 대접했다. 명신 스님은 "매월 지속적으로 점심 봉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는 19일 경내에서 '2009 설맞이 사랑의 쌀 · 떡국떡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 상무1동(동장 최현호) 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200여 세대에 1500Kg의 쌀과 200세대분 떡국 떡을 전달했다. 이어 22일에는 설연휴 귀향길 교통정리 및 방범활동에 수고할 전 · 의경 200여 명을 초청해 노고를 치하했다.

무각사 관계자는 "무각사 자비봉사단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따뜻한 마음들이 함께 모이면 세상은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지역 봉사프로그램을 주도해온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 지혜나눔실천회(회장 최일광, 선지행 · 여)는 19일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떡국 봉사를 펼쳤다.

2005년 12월 창립한 지혜나눔실천회는 창립이후 5년 동안 200여 회에 걸쳐 매주 월요일 독거노인 20여 가구에 도시락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

자원봉사자 김백경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을 도우니 행복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군산 불자 "화합으로 위기 극복"

## 군산사암련 · 신도련 신년하례법회

차가운 겨울 바람보다 매서운 경기한파에 모두가 움츠리는 때, 불교계가 화합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군산지역 불자들은 1월 20일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기축년 신년하례 및 군산발전 기원 조찬 법회'를 봉행했다.

군산 사암연합회가 주최하고 (사)군산 신도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법회는 재곤 스님(관음사), 재훈 스님(동국사), 지환 스님(흥천사)을 비롯한 지역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강봉균 국회의원, 문동신 군산시장, 김용화 전북도의원, 양용호 군산시 의장 등 정관계 인사, 불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재곤 스님은 법어에서 "가정의 행복의 곧 국가의 행복"이라며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때지만 불자들이 모범을 보여 일치단결하는 화합대중의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참석한 각급 기관장들은 "군산발전이 전북발전이고 성공적인 새만금개발이 나라의 발전"이라며 "기축년 새해 부처님의 가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안근 신도회장은 "이번 법회를 계기로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서로 배려하는 바람직한 불자상을 정립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 며 "신행활동과 포교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북 대표 문화재 한자리에

## 국립전주박물관 리모델링 마치고 미술실 공개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전시되는 왕궁리 금동여래입상(좌), 사감운룡문배병(우), 최석환 포도병풍(아래).

최근 익산 미륵사지석탑에서 500여 점의 금제사리구 등이 출토되면서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영원)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금동불입상(국보 제123호) 등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선보여 불교문화 포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1월 20일 상설전시실 미술실을 개편해 공개했다. 새로운 디자인과 전시기법을 활용해 한글세대를 위한 우리말 설명문 등으로 꾸며 재개관한 미술실은 전북의 미술을 대표하는 4개의 주제별 전시실에 150여 문화재들로 채워졌다.

'전북의 불교미술' 전시실에는 삼국~고려 시대 전북 지역에서 출토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금동불입상(국보 제123호)을 비롯해 익산 미륵사지 · 전주 화엄사 등 사찰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 등이 전시됐다.

'전북의 도자기' 전시실은 고려시대 대표적 청자 생산지였던 부안 청자와 조선초 고창 분청사기 등을 통해 전북 도자예술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에서 출토된 '청자모란무늬매병'과 부안 지역의 '청자고리무늬의자' 등과 군산 앞바다에서 나온 해저인양 청자도 전시됐다.

'조선왕실과 서화' 전시실에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본향 전주의 의미를 되짚어 보자는 취지에서 전시된 <태조어진>을 비롯해 조선 종실 대표화가인 이징(1581~?)의 '화개현의 별장 그림(보물 제1046호) 등을 전시했다.

'예향, 전북의 서화' 전시실에는 조선 후기~근현대 전주지역 서화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대표적인 조선 여류 문인의 한사람인 설씨부인(1429~1509)의 '보시를 권하는 글'(보물 제728호) 등을 전시해 예향 전북의 멋을 감상하도록 했다.

김영원 관장은 "이번 전시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관람객이 전북 미술의 멋과 아름다움을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묵묵히 포교의 길 갈 터"

## 광주전남포교사단 다짐


광주 · 전남포교사단은 1월 18일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새 각오를 다지기 위해 광주전남포교사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 · 전남포교사단(단장 백남용)은 1월 18일 광주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에서 계성 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과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강홍원 단장(조계종 중앙포교사단)과 광주전남지역 포교사와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기 2553년 신년법회 및 포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도일 스님(송광사 율원장)은 법문에서 "부처님 법은 실천한 만큼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이룬다"며 "계율을 지키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포교하는 마음이며, 성불로 가는 길"이라고 설했다.

법문에 앞서 백남용 광주전남포교사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축년에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교훈처럼, 불법홍포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며 묵묵히 포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천불 법당 조성

## 태고종 법륜사

무등산에 1000불 법당이 조성된다. 태고종 광주 법륜사(주지 월인)는 1월 19일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전통불교영산회 스님들의 신중작법과 권공, 축원 등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지암 스님(중앙원로의원),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등 200여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여했다.

월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도심포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포교역량을 집중해 지역포교에 일익하는 도량이 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전라남도청 불자회 장송기 간사**

# "최선 다 해 사는 것이 바로 포교"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국도 1번 도로를 따라 광주에서 목포가는 길목. 무안군 남악리에 소재한 전라남도청을 찾았다. 전남도청 불자회 간사를 맡은 장송기(법명 도정 · 사진)씨를 만났다.

현재 전남도청 불자회는 홍석태 회장(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해 최복자 부회장, 장송기, 문정금씨 등 120여 회원으로 구성됐다.

척박한 호남불교 환경 속에서도 전남도청 불자회는 목포불교대학에서 매월 정기법회를 진행해왔다. 전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진행하는 F1 성공기원법회, 신년하례법회 등 불교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시 · 군청 불자회와 연계해 불교행사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불자회가 결성되지 않은 시 · 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전남도청 불자회는 도내 공무원불자회의 맏형격이다. 특히 행정기관 간에 위계질서가 있는 곳이라 도청불자회의 역할 또한 크다. 불교의 불모지라 하는 호남에서 장송기 간사의 말처럼 공무원 불자들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해 봄직하다.

장 간사의 직함은 공무원 불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사무국장을 맡은 그는 일주일이 부족할 정도로 공무수행과 신행생활에 앞장서 왔다.

장송기 간사는 불교에 늦게 입문했다. 중학교부터 청년까지는 새벽기도회에도 참석하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기도 했다. 그랬던 그는 어떻게 불자가 됐을까?

아내 윤경숙 포교사가 불교대학을 다니며 불교공부를 하자 장 간사 역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했다.

장송기 간사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인과응보의 당연한 진리를 보며, 점차 불교에 매력을 느끼게 됐다"는 장송기 간사는 말했다. 인생에서 원인과 결과가 철저하게 적용되는 진리. 이것이 그의 불교적 신념이 됐다. 장 간사의 초발심은 불교대학 진학까지 이어졌다. 포교사 시험도 통과해 포교일선에서 수행과 공부를 진행 중이다.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고, 집사람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두달간 중환자 대기실에서 생활했습니다. 아침이면 눈 뜨기가 겁이 났고요.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를 지탱하고 극복할 힘을 준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었다. 평소 하심(下心)하며 포교활동을 한다는 장 간사에게 포교란 무엇인가를 물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포교 아니겠습니까? 생활에서 자연스레 불교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것 같은 그의 말이지만 '공짜는 없다'는 그의 인과적인 가치관과 생활을 보면 도리어 모든 불자들이 실천해야 될 금언(金言)처럼 들린다.

"많은 공무원 불자들이 공무원불자회에 참여해 시 · 군 불자회가 창립되기를 바랍니다."

장송기 간사는 공무원불자회 중심의 호남불교 도약을 기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SHC 삼환양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양초전문 기업 삼환양초는 꾸준한 신상품 개발 및 최고의 상품만을 공급하여 드립니다.
• 신상품 : 실내용양초 - 밀압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의문]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조계종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